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양적추론 워크숍(8.20, 수)을 소개하며 부탁 말씀 올립니다.

양적추론은 실생활의 문제를 계량적으로 수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교과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비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가?”,

“통학과 자취의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은행에서 천만원을 대출받고 20년간 균등상환하려면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할까?”와 같은 질문을 절차적으로 계산해보고 결론 내리는 훈련을 하는 교과입니다.

양적추론은 인문, 사회, 예체능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감각을 키우고 통계와 산술에 익숙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도 확장됩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인 인공지능(AI) 교육의 밑바탕이기도 합니다. 이미 개설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다른 기초과학 교과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기초과학과 수학 및 양적추론을 기초문해교육의 세부 영역으로 개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립대학,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등 미국 대학의 대부분이 양적추론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교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대학에서 양적추론 교과 교육은 아직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를 강의에 적용할 교·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양적추론 워크숍은 대학에서 양적추론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강의할지를 함께 탐색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수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연과학, 사회과학 계열 교수님이라면 누구나 쉽게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계열 및 수학을 전공한 교수님께서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준비한 이번 워크숍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수학 지원사업 운영위원장 최병문 올림

